



서서평 선교사님의 섬김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32세의 나이로 조선에 와서 1934년 54세로 돌아가시기까지 22년 동안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보살폈던 분이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죽어 가는 조선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섬김을 실천한 분이다.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라는 그분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Q 섬기다

국어사전

- 신(神)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예) “부모를 극진히 섬기다.”

영어사전

- serve, take care of
“serve God”

한자사전

- 仕(섬길 사, 벼슬 사)
“섬기다, 일하다, 종사하다, 벼슬하다, 살피다, 밝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받들어 모시는 섬김이 아니에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를 향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보다 낫게 여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밭을 씻겨 주신 것처럼, 섬김은 모든 사람보다 자신을 낫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김 실천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골라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적어보세요.



언제 _____
누구에게 _____
어떻게 _____



언제 _____
누구에게 _____
어떻게 _____



언제 _____
누구에게 _____
어떻게 _____



언제 _____
누구에게 _____
어떻게 _____

